마룻바닥 아래 지켜 낸 윤동주의 시,

열아홉 곡 노래가 되어 무대 오르다

소프라노 윤한나 독창회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노래'
이세종, 원문 그대로 작곡…피아노 · 대금 · 해금 함께한 무대

윤동주가 생전에 펴내려 했던 시집 가운데 열아홉 편의 시가 노래가 되어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3일 저녁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소프라노 윤한나 독창회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노래'에서다.

'19개의 방, 19개의 노래'를 내건 이번 공연에서 윤한나는 이세종이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 19곡을 모두 선보였다. 이세종이 피아노를 맡고 노희설이 해설로 함께했다. 대금 이성재와 해금 신화영도 무대에 올랐다.

광양에서 만난 원고, 열아홉 달의 작곡

작곡의 출발점은 전남 광양 망덕포구였다. 이세종은 윤동주의 육필 원고를 지켜 낸 정병욱의 옛집을 찾은 뒤, 그 원고에 담긴 시를 모두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집을 펴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직접 만든 원고 한 부를 후배 정병욱에게 건넸다. 정병욱이 징집되자 그의 어머니는 원고를 멍주보자기에 싸 항아리에 넣고 마룻바닥 아래 보관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원고는 해방 뒤인 1948년 유고 시집이 세상에 나오는 밑바탕이 됐다.

열아홉 편을 악보에 옮기는 데에는 열아홉 달이 걸렸다. 이세종이 지킨 원작은 분명했다. 시어를 삭제하거나 되풀이하거나 고치지 않았고, 윤동주가 쓴 당시의 맞춤법도 살렸다. 노래에서는 선율의 흐름을 위해 구절을 덜어 내거나 한 행을 후렴처럼 반복할 수 있다. 이세종은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의 순서를 지키기로 했다. 그러려면 길이가 다른 행과 분장마다 선율과 호흡이 새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가 공연을 마치며 시에 그저 음악을 입혔을 뿐이라는 쥐지로 한 말에는, 시인의 언어를 먼저 듣고 그 언어에 맞춰 곡을 쓰려 했던 태도가 담겨 있었다.



청춘과 고독을 지나 '별 헤는 밤'으로

공연은 '하늘을 바라보다', '바람을 걷는 사람', '별을 꿈꾸다'의 세 부분으로 이어졌다. '서시'와 '자화상', '소년'으로 문을 열어 정준의 사색을 들여다봤고, '병원'과 '긴 란 없는 거리', '무서운 시간'으로 이어지며 시인의 내면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마주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십자가', '또 다른 고향', '길' 등이 놓였고, 마지막 곡은 '별 헤는 밤'이었다. 익숙한 몇 편을 중심으로 시인을 기억해 온 관객에게는 여러 작품 사이를 오가며 윤동주의 고뇌와 희망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성이었다.

윤한나가 정한 국악기 협연은 공연에 또 다른 음색을 더했다. '눈 오는 지도'와 '태초의 아츰'에서는 각각 해금과 대금이 홀로 시의 분위기를 풀었고, '돌아와 보는 밤'에는 해금이, '또 태초의 아츰'에는 대금이 노래와 함께했다. 마지막 '별 헤는 밤'에서는 두 악기가 함께했다. 악기가 홀로 들려주는 대목과 시어가 목소리로 전달되는 대목을 번갈아 배치해, 같은 시인의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듣게 했다.

시인의 언어를 자기 목소리로 건네는 일

이세종은 미션2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한나의 고운 목소리가 서정적이면서도 애절하고 진지하게 들렸으며, 그 점이 자신이 느낀 윤동주의 마음과 닮았다고 밝혔다. 윤한나에게 열아홉 곡을 부르는 일은 시기 쓰인 때의 마음과 숨결을 헤아리는 과정이었다. 그는 윤동주의 시에 힌 인간의 삶과 양심,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다고 했다. 곡마다 정준의 고민과 시대의 아픔, 고독을 마주했고 그 속에서도 시인이 끝내 잃지 않았던 희망과 사랑을 발견했다고 돌이봤다. 이번 무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누군기에게 어떤 울림으로 남을지 되묻는 자리이기도 했다.

힌때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시를 누군기는 마룻바닥 아래 지켰고, 작곡기는 시어를 그대로 악보에 옮겼다. 소프라노는 그 언어에 힌 편씩 숨을 불어넣었다. 마지막 곡 '별 헤는 밤'에 이르러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힌 사람의 양심이 담긴 언어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 온 이들의 수고다.

/이박행 본지 주필

사설



文敎 이박행 목사
미션21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도렴 대표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광주 · 전남 농어촌목회, 도농 상생에서 미래를 열자

광주 · 전남 농어촌에서 정년이 떠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주일학교를 이어기기 어려운 교회기 늘고 있다. 교인 고령화와 지역경제의 약화는 교회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례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병행하는 목회자가 있고, 은퇴를 앞두고도 후임을 찾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목회 공백이 길어지면 예배와 신앙교육이 위축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던 관계도 느슨해진다. 농어촌목회의 미래를 논하려면 교회와 마을이 함께 살아갈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촌의 생신 기반은 도시의 일상과도 직결된다. 폭염과 집중호우는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을 흔들고 바닷물 온도의 변화는 어민의 생계에 영향을 준다. 그 여파는 도시의 밥상과 장바구니에도 닿는다. 논밭과 갯벌, 연안 어장을 돌보고 농어민이 다음 해에도 생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일은 도농이 함께 감당할 과제다. 창세기가 말하는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창 2:15)은 오늘의 교회에도 먹거리기 어디서 오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과 터전을 어떻게 지킬지 묻는다.

도농직거래 장터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발점이다. 광주에서 이어온 봄명동 장터에서는 농어촌 생신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만났다. 생신자기 작황과 수확 사정을 들려주고 소비자기 제철 먹거리의 기치를 배우는 자리였다. 장터에서 맺은 관계를 제철 꾸러미, 정기 주문, 공동배송으로 이어기면 생산자는 판로를 예측하고 도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꾸준히 구할 수 있다. 작황이 나쁜 해에도 도시교회가 농어민과 사정을 나누고 주문 품목이나 시기를 조정한다면, 거래 관계는 한 철의 행사를 넘어 지속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권역 단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의 교회, 생산자 조직, 협동조합, 신학교,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창구가 필요하다. 권역에서는 공동 주문과 물류를 맡고, 마을에서는 주민과 교회기 필요한 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인접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청소년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신학생 장학금을 현장실습과 선배 목회자의 지도에 연결하는 일도 권역에서 주신할 수 있다.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재정을 모으면 작은 교회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 농어촌교회에는 예배와 신앙교육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민이 먹거리와 돌봄 문제를 함께 의논할 자리를 열어갈 가능성이 있다. 농번기 아동 돌봄이나 섬마을 어르신의 인부 확인처럼 주민의 필요가 분명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청년과 신학생에게는 그 과정에 참여하며 농어촌에서 일하고 살아갈 길을 모색할 기회가 생긴다. 이를 위해 권역 사업에는 여러 해에 걸친 예산을 마련하고, 장터의 판매액과 함께 재구매가 이어지는지, 후임 목회자기 정착하는지, 주민이 사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돌보셨다(마 9:35~38). 오늘 광주 · 전남 교회기 그 길을 잇는 일은 도시와 농어촌이 서로의 생활을 지탱하는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도시교회가 농어민의 생신을 일상에서 뒷받침하고, 농어촌교회가 다음 세대 일꾼이 정착할 자리를 주민과 함께 마련할 때, 광주 · 전남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먹거리와 돌봄,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목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장로회 제56회 정기총회 성료

회장 박찬길 장로 "노회 장로회 화합 · 발전에 역량 집중"

제56회 전남노회 장로회 정기종회기 지난 11월 7일(토) 오전 10시 방림교회 예배당(김원웅 목사 시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 188)에서 열렸다.

"섬김! 우리의 사명입니다"(막 10:45)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기종회 제1부 개회예배에서 김원웅 목사기 "사명, 복 잇기"(창 26:23~25)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제2부 내빈인사 및 축사 순서에는 내빈 소개, 전회장 소개, 은퇴 및 신입장로 소개, 공로패 증정에 이어 전남노회장 송인동 장로와 전남노회 목사회장 강정원 목사의 축사기 있었다.

제3부 정기종회는 각종 회무 처리와 함께 임원선출, 신구임원 교체, 축하 및 신임회장 인사순으로 이어졌다.

제56회기 신임회장 박찬길 장로는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아 어기기 무겁다"며 "노회 장로회 화합과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임된 제56회 전남노회장로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박찬길 장로(방림교회) ▲직전회장 : 추철호 장로(광주서석교회) ▲선임부회장 : 김영석 장로(광주무등교회) ▲부회장 : 문영태 장로(옥과교회) ▲부회장 : 최용수 장로(광주제일교회) ▲부회장 : 황대연 장로(상무무등교회) ▲부회장 : 김철원 장로(광주다일교회) ▲총무 : 김혜웅 장로(온누리교회) ▲서기 : 최승동 장로(금천중앙교회) ▲부서기 : 박중순 장로(포도원교회) ▲회록서기 : 신정문 장로(광주양림교회) ▲부회록서기 : 박래석 장로(한광교회) ▲회계 : 송용성 장로(광주벧엘교회) ▲부회계 : 박수현 장로(광주서남교회) ▲감사 : 김정수 장로(영평교회), 김해진 장로(나주교회) ▲협동총무 : 김용집 장로(남광교회), 장오영 장로(광주영락교회), 류기환 장로(월광교회)



지난 7일 오전 10시 방림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예장통합 전남노회 장로회 제56회 정기총회.

제56회기 전남노회장로회 임원



회장 **박찬길** 장로
직전회장 **추철호** 장로
선임부회장 **김영석** 장로
총무 **김혜웅** 장로

- 회 장: **박찬길** 장로(방림)
- 직전회장: **추철호** 장로(광주서석)
- 선임부회장: **김영석** 장로(광주무등)
- 부 회 장: **문영태** 장로(옥과)
  최용수 장로(광주제일)
  황대연 장로(상무무등)
  김철원 장로(광주다일)
- 총 무: **김혜웅** 장로(온누리)
- 서 기: **최승동** 장로(금천중앙)
- 부 서 기: **박중순** 장로(포도원)
- 회록서기: **신정문** 장로(광주양림)
- 부회록서기: **박래석** 장로(한광)
- 회 계: **송용성** 장로(광주벧엘)
- 부 회 계: **박수현** 장로(광주서남)
- 감 사: **김정수** 장로(영평)
  김해진 장로(나주)
- 협동총무: **김용집** 장로(남광)
  장오영 장로(광주영락)
  류기환 장로(월광)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우)614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 629(소태동) FAX 062)232-0024

전도용품 · 기념품 · 기획상품

전도용품
-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항상 기억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100원~200원대)
- 전도 및 심방시 사용 할 수 있는 심방 전도용품

기념품&행사용품
- 위임, 임직, 헌당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제품
- 초청장, 식순, 기념패, 기념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경과 교회가 디자인 된 주일학교 가방 및 전도용 가방
- **고급타올 및 우산, 예배상, 무릎담요**

기획상품
- 핸드 페인팅 도자기 그릇
- 강화유리접시
- 전통옹기찬기
- 키친아트 파카글라스
- 아름다운 문양의 공기대접
- 다양한 그릇, 잡화, 생활용품

(이 모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경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5-35 (전대 치과대학 맞은편)
TEL.062)430-5635 FAX.575-5635
H·P·010-2662-5440